

아태지역 실질협력 발전에 기여하는 한-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협력 발전 모색

- 국제경제국장, 제36차 한-ESCAP 연례협의회(9.11.) 참석 -

제36차 한-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이하 ESCAP) 연례협의회가 우리측 김지희 국제경제국장, ESCAP 측 아드난 알리아니(Adnan Aliani) 전략사업 국장을 수석대표로 2025.9.11.(목)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미, 일, 중, 러 포함 정회원국 53개국 / 준회원국 9개국)
- ※ APEC 참여중인 총 21개 경제체중 16개가 UN ESCAP 회원으로 참여중(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홍콩)

우리나라는 2007년 이래 ESCAP 최대 공여국으로 정보통신, 환경, 교통 등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인천 송도에 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ESCAP 동북아사무소(SRO-ENEА)을 유치·운영하는 등 ESCAP에 적극 기여해왔다. 특히 외교부는 한-ESCAP 협력기금(KECF)**을 통해 우리의 중점 지역 및 분야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면서, 한-ESCAP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KOICA, 서울대 등을 포함 총 11개 부처기관이 13개 협력사업 실시 중 (총액 약 1,265만불)

** 한-ESCAP 협력기금(Korea-UN ESCAP Cooperation Fund) :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987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30여년간 총 1,500만불 기여, 200여개 이상의 사업 진행 / 2025년

현재 3개 사업 진행중

올해로 36번째인 한-ESCAP 연례협의회에서 양측은 △계속 협력사업 이행 현황 및 성과점검, △신규 협력사업 발굴,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연례협의회에서 김 국장은 ESCAP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알리아니(Aliani) 국장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아태지역 내 개도국들의 여러 분야별 발전 노력에 적극 기여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고, 한-ESCAP 협력사업 등의 성공적인 공조 및 성과 거양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후 김 국장은 린양(Lin Yang) UN ESCAP 사무차장과 환담하였다. 김 국장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신정부 하에서도 흔들림없는 정책 중점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2025 APEC 의장으로서 추진 중인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핵심성과물들이 내년 82차 ESCAP 총회 등에서 역내 협력 논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ESCAP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양(Yang) 사무차장은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성과의 유지 및 활용이 중요함에 공감하면서, APEC에서 합의된 주요 결과물들이 ESCAP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번 연례협의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협력 환경 속에서 아태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파트너인 ESCAP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방면에서 진전 중인 한-ESCAP 협력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동 연례협의회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발전 기여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ESCAP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실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ESCAP 등 역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사진. 끝.

담당 부서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서영민 (02-2100-7736)
		담당자	사무관	백미란 (02-2100-77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